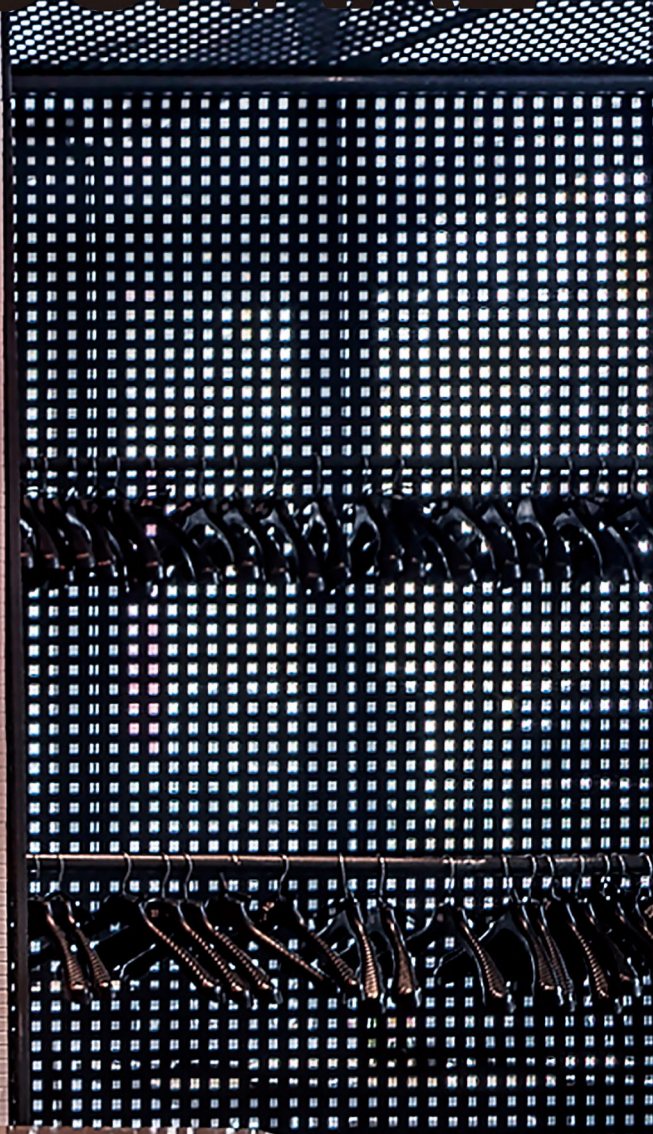


Vol. 287

# DECO JOURNAL



2019. 06





# Normal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위치한 YOD 스튜디오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이어온 유능한 디자인팀으로 건축과 디자인에 재능이 넘치는 디자이너들이 한 데 모여있다. 모던한 스타일부터 각 나라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스타일까지 다채로운 컨셉을 모두 완벽히 소화하는 이들은 호텔, 레스토랑, 카페, 바 등의 상업 공간에 특화된 디자인을 선보인다. 미니멀리즘과 색다른 자재의 활용,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가구 디자인부터 장식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성은주** 기자



**DESIGN STUDIO:** YOD Design Lab  
**EMAIL:** yodlab.pr@gmail.com  
**CONTACT:** +380975386205

**TYPE:** Restaurant & bar & night club  
**TEAM:** YOD Design Lab  
**CONTACT:** yodlab.pr@gmail.com  
**LOCATION:** Antonovicha st., 81, Kyiv, Ukraine  
**AREA:** 635㎡  
**PHOTOGRAPHER:** Roman Kupriyan



우크라이나 키예프(Kyiv)에 위치한 Normal은 그 이름처럼 평범(normal)하지 않은, 다채로운 면모의 레스토랑이다. 동유럽에 자리해 있지만, 트렌디한 뉴욕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감각적인 공간이다. 모던하고 단정한 외부를 지나 내부로 들어서면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 다양한 조도의 조명, 인더스트리얼과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조화를 만나볼 수 있다. 시간대에 따라 변신하는 Normal은 낮에는 밝은 조도와 화려한 페인팅이 세련된, 식사를 위한 레스토랑으로 기능한다. 낮 시간, 데이트나 업무 미팅에 적합한 분위기의 Normal은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도시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Normal은 새로운 옷을 입는다. 댄스 플로어가 펼쳐지고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오는 화려한 무대가 된다. 푸른 빛과 붉은 빛의 조명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은 몽환적이면서도 깊은 무드가 있는 바(bar) 겸 클럽(club)으로 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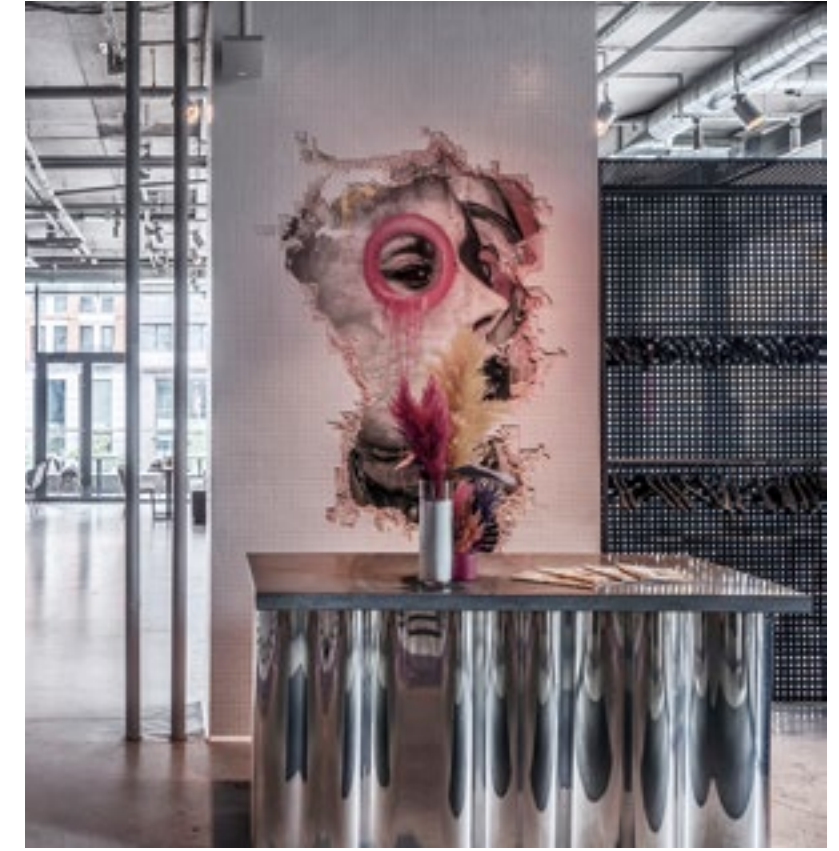


다양한 매력의 Normal에서 가장 특별한 인테리어 요소를 꼽자면, 브루클린 스타일의 낙서를 연상케 하는 벽면의 페인팅이다. 과감하고 유니크한 페인팅은 마구잡이로 그린 듯한 자연스러움과 그 속에 느껴지는 입체감이 Normal을 더욱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테리어 요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화사한 레스토랑과 화려한 바(bar)의 느낌을 동시에 소화해야 했기에 양면적이면서도 반전미 넘치는 요소들로 채워졌다. 천장은 오픈형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파도가 치듯 유연한 곡선형의 스틸을 활용한 조형물은 예술적인 무드를 더욱 강조한다. 자칫 차가운 느낌을 주는 콘크리트 벽에는 천장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 부드러운 느낌을 보완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길게 뻗은 유리창은 도시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면서도 실내에 채광이 잘 들게 한다.





철제 프레임의 전면창은 채광에 따른 밤과 낮의 확실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인테리어 요소다. 벽과 천장에 다소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인테리어 장식 요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가구 선택에 있어서는 심플함을 추구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형태의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으며, 컬러 또한 무채색 또는 원목 컬러로 선택해 통일감과 차분함을 더했다. 또한, 낮의 화사한 공간 연출을 위해 식물 위주의 디테일 요소로 온화함과 친근함을 채웠다. 낮에는 업무 회의와 점심 식사가 가능하고, 저녁에는 로맨틱한 바(bar), 더 깊은 밤에는 클럽으로 기능하는 Normal은 한 공간의 다채로운 변신, 다양한 인테리어 요소의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 SPACE STORY

Normal is a new cosmopolitan establishment with atmosphere of street art in New York, which successfully combines several formats. In the daytime «Normal» functions as a restaurant, with the onset of dusk passes into the format of the evening bar, and with the advent of complete darkness turns into AbNormal – night club with dance floor, live music and light installations. Lighting contributes to the triple transformation of establishment in the interior plan and changes its

shade according to the format: white daylight changes with bar blue, that in turn goes into the red in accordance with the club concept. The feature of institution are graffiti and drawings in the style of art vandalism, which immerse into the atmosphere of Brooklyn. In the evenings they «come alive» thanks to 3D-mepping. Due to its multifunctionality and the ability to adapt «Normal» at once attracted attention and became a favorite place for party-goers and supporters of extraordinary places.